

# 13번째 옐로 저지... '단양→삼척'서 갈렸다

가장 험한 3구간서 폭발적 지구력 큰 격차 벌리며 4·5구간 선두 지켜 오람 '산악왕'·리기기 '스프린트왕'

이탈리아의 필로 차칸티(24·니포-비니 판티니)가 '투르 드 코리아 2019' 13번째 옐로 저지의 주인공이 됐다.

차칸티는 12일부터 16일까지 군산, 천안 독립기념관, 단양, 삼척, 고성, 서울 등 6개 지역에서 이어진 총 605.2km의 레이스를 13시간35분38초로 질주하며 정상에 올랐다.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옐로 저지를 입은 차칸티는 16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삼페인을 뿌리며 자축의 시간을 보냈다.

우승은 14일 벌어진 3구간 레이스에서 갈렸다. 차칸티는 이날 최종 5구간에서 38위로 끝났다. 그러나 난코스로 꼽힌 단양~삼척의 180.8km를 4시간1분18초로 주파하며 1위로 끝내 2위 그룹과 격차를 크게 벌렸다. 3구간은 출발선부터 76.7km까지 가파른 오르막이 이어지고, 해발 926m의 언덕을 넘는 험난한 코스였다. 차칸티는 1·2구간에서 종합 50위에 머물렀지만 산악코스에서 폭발적 지구력을 과시하며 단숨에 선두로 올라섰고, 4·5구간에서 1위 기록을 지켰다.

16일 열린 5구간은 서울 시내에서 진행돼 높은 언덕이 없는 평지에서 빠른 속도로 전개됐다. 스프린트 능력이 뛰어난 마틴 라스(일루미네이트)가 1시간21분28초로 2구간에 이어 또 한번 1위에 올랐다. 그러나 라스는 산악코스가 중요했던 3구간



필로 차칸티(가운데·니포-비니 판티니)가 16일 끝난 '투르 드 코리아 2019'에서 전체 605.2km의 레이스를 가장 빠른 13시간35분38초로 질주하고 최종 우승 영광을 안았다. 왼쪽은 2위 벤자민 페리(이스라엘 사이클링 아카데미), 오른쪽은 3위 레이몬드 크레데르(팀 유코).

에서 기록이 크게 뒤쳐졌고, 종합 13시간 53분45초로 최종 65위에 그쳤다.

차칸티의 소속팀인 이탈리아 니포-비니 판티니도 40시간49분36초로 팀 종합 1위를 거머쥐었다. 차칸티에 이어 벤자민 페리(이스라엘 사이클링 아카데미)가 13시간 36분19초로 2위를 차지했고, 유력한 우승 후보였던 레이몬드 크레데르(팀 유코)는 13시간36분40초로 3위에 올랐다.

한국선수들 중에선 최형민(금산인삼철

로)이 13시간36분54초로 가장 높은 9위에 올랐고, 이어 2017년 투르 드 코리아 챔피언 민경호(서울시청)가 10위로 톱10 진입에 성공했다.

산악코스 종합 1위에 주어지는 레드 플라닛 저지는 제임스 오람(미첼튼 바이크 이스체인지)에게 돌아갔다. 스프린트 1위의 블루 저지는 유세프 리기기(트렝가누)가 수상했다. 만23세 미만 1위에 주어지는 베스트 영 라이더의 화이트 저지는 코빈 스

트롱(ST 조지 콘티넨탈)이 차지했다.

605.2km의 대장정이었던 투르 드 코리아의 13번째 대회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사이클연맹(UCI) 공인의 국제대회로 인정받아 더 큰 도약이 기대된다. 올해는 특히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2구간을 출발하며 대회의 의미를 한층 더 되새기게 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 에이스 최형민 최종 9위 한국사이클 자존심 지켜



최형민

한국도로사이클의 에이스 최형민(29·금산인삼철로)이 투르 드 코리아 2019에서 최종 9위에 오르며 개최국의 자존심을 살렸다.

최형민은 12일부터 16일까지 군산, 천안 독립기념관, 단양, 삼척, 고성, 서울에서 펼쳐진 이번 대회에서 최종 13시간36분54초로 9위에 올랐다. 한국선수들 중에선 가장 높은 순위이며, 민경호(10위·서울시청)와 함께 톱10에 진입했다. 최형민은 스프린트가 강점이지만, 이번 대회에선 '킹 오브 마운틴'(산악왕) 3위에 오르며 선전했다.

최형민은 2010년 광주아시아게임에서 한국도로사이클 최초로 아시아게임 금메달을 목에 건 주인공이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아게임에 남자 도로독주에서 4위를 기록했다. 투르 드 코리아는 국제사이클연맹(UCI) 공인 2.1클래스대회로, 올림픽 출전 포인트가 걸려있다. 내년 도쿄올림픽 출전을 위해 은퇴를 미룬 최형민은 이번 대회 톱10 진입을 바탕으로 올림픽무대를 향한 도전을 계속한다.

지난해 투르 드 코리아에서 킹 오브 마운틴에 올랐던 권순영(26·KSPO 비앙키 아시아 프로 사이클링)은 이번 대회 초반 좋은 레이스를 펼치며 우승 후보로도 꼽혔다. 3구간부터 순위경쟁에서 밀렸지만, 킹 오브 마운틴 2위로 유종의 미를 거뒀다. 이경호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 605.2km 대장정의 필수품 '고열량 음식'

에너지바·분말 등 휴대해 체력 보충 물병 보급 '도메스티크'와 호흡 중요

605.2km를 질주한 투르 드 코리아 2019가 16일 성대하게 막을 내렸다.

이날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대회 최종 5구간 결승선 앞에 있던 많은 팬들은 고개를 가웃했다. 선수들의 유니폼 상의 허리 위에 달린 특별한 주머니가 눈길을 사

로잡았기 때문이다. 매끈한 디자인에 주머니는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도로사이클 유니폼이지만, 등 주머니는 레이스를 마치기 위해 꼭 필요한 공간이다.

도로사이클은 길게는 4시간 동안 쉬 없이 코스를 달려야 한다. 약 5000cal가 소모되는데, 경기 전 충분한 식사를 해도 열량은 부족해진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출발 1시간 전후부터 영양공급을 시작한다. 과거에는 바나나를 꺾고 달리기도 했지만, 최근

에는 에너지바를 비롯해 분말, 젤 등 휴대하기 쉽고 열량이 높은 음식이 인기다.

레이스에 지장을 받지 않으면서 주머니에서 음식물을 꺼내 먹는 것도 매우 중요한 기술이라 맞춤형 훈련도 진행된다. 팀 스태프는 보급 구간에서 미리 준비한 음식물을 선수들에게 전달한다. 매우 빠른 레이스 도중에 보급품을 건네야 하는 까닭에 놓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여러 명이 동시에 배치된다. 보급을 받지 못하면 좋은 기록을 낼 수 없기에 스태프와 함께 반복적으로 훈련한다.

또 각 팀에는 주로 신에 선수들이 맡는

'도메스티크(domestique·집사)'가 존재한다. 최근에는 '친구' 등으로 호칭이 바뀌고 있는데, 팀원들에게 물병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무생수병을 여러 개 차고 레이스에 나서기 때문에 개인기록에서 손해를 보지만 팀을 위해 헌신한다. 동료들의 자전거가 고장 나면 자신의 것과 끈장 바꿔주기도 하고, 맛바람이 불면 에이스의 앞에서 바람을 막아주기도 한다. 다른 팀 선수들이 에이스의 주로를 위협하면, 대신 자전거로 막아서기도 한다. 보급품과 헌신적인 친구는 도로사이클 속에 숨어있는 특별한 요소이자 흥밋거리다.

이경호 기자

주최 : 동아일보 KSPo 국민체육진흥공단 주관 : 2019 투르 드 코리아조직위 대한자전거연맹 SPO-EX-COM 스폰서 : SHIMANO GARMIN THULE 주관 방송사 : CHANAL

## 제73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

# “고교야구 최강은 우리야”...황금사자기 46개교 격돌

오늘부터 13일간...IB스포츠 등서 생중계 마운드 탄탄한 광주일고·충암고 우승 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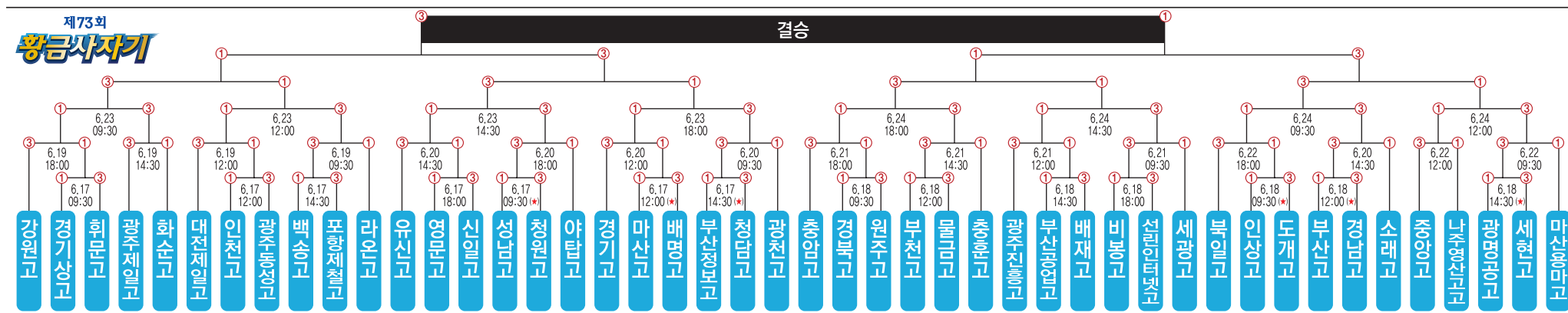


제73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이 17일 개막한다. 동아일보사, 스포츠동아, 대한야구협회(KBSA)가 주최하는 이 대회는 29일까지 서울 목동 야구장에서 열린다.

전국 46개 고교가 우승컵을 놓고 격돌한다. 지난해 42개교에서 올해는 4개교가 더 늘었다. IB스포츠가 주요 경기를 생중계하며 대회 홈페이지(goldlion.donga.com)에서도 중계방송 시청이 가능하다.

황금사자기는 한국야구의 미래 주역들이 모두 모이는 경연장이자, 출전한 고교의 동문들에게는 큰 축제의 장이기도 하다. '베이지 키츠'로 불리는 많은 유망주들이 각 고교 대표로 황금사자기를 다툰다. 복일고, 충암고, 광주일고 등 전통의 강호들이 출몰한다.

제73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 기간 : 2019년 6월 17일~29일 장소 : 목동야구장, 신월야구장(★)



주최 : 동아일보 스포츠동아 KBSA 협찬 : SK telecom ktoto 중계방송 : IB SPORTS

광주일고는 에이스 정해영의 활약을 기대하며 우승에 도전한다. 정해영은 '해태왕조'의 주전 포수였던 정희열 KIA 타이거즈 전력분석원의 아들이다. 2020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KIA의 유력한 1차지명 후보다. 2학

년 때 이미 청소년국가대표 선발될 정도로 뛰어난 구위와 안정적인 제구력을 자랑한다. 충암고는 3학년 배세중, 김범준에 제구력이 일품인 2학년 강효중 등 에이스급 투수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마운드 전력

탄탄해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다. 충암고의 최근 마지막 전국대회 우승이 2011년 황금사자기다. 8년간 오르지 못한 전국무대 정상을 황금사자기 무대에서 도전한다. 올해 황금사자기는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격전이 예상된다. 2학년이지만 전국고교 투수랭킹 1위로 꼽히는 장재영의 투수고가 주말리그 예선에서 탈락하며 황금사자기에 참가하지 못하는 등 개막 이전부터 이번이 속출하고 있다.

이경호 기자